

衄血에 對한 文獻的 考察

구원희 · 안일희 · 김세길

I. 緒 論

血은 中焦에서 氣를 받아 汁을 取하여 變化되어 生成된 것으로 氣를 따라 內로는 臟腑를 榮하고 外로는 經絡을 循行하여 全身을 流注하는데 “陽絡脈” 卽, 軀殼之外의 肌肉皮膚脈絡이 傷하면 血이 外溢하여 衄血이 된다.³¹⁾³³⁾

衄血이라는 말은 《素問》 氣厥論에 “脾移熱於肝則 驚衄”이라 收載된 以來로 太³⁾方¹⁵⁾ 龔²³⁾康²⁹⁾ 등은 “衄血者 鼻中出血也”라 하여 鼻出血로, 方¹⁵⁾張²¹⁾丹³⁰⁾ 등은 “衄血種種 各有所從 不獨出于鼻者 爲衄也”라 하여 血이 清道를 따라서 鼻·耳·眼·舌·齒 及 肌膚 등으로 滲出하는 넓은 意味의 出血로 諸家에 依하여 混用되어져 왔다.

衄血의 病因病理를 살펴보면 巢²⁾嚴¹⁰⁾龔¹²⁾ 등은 무릇 血이 熱을 得하면 洩溢하고 血氣가 俱熱하면 血이 氣를 따라 衄血이 되니 熱로 因하지 않음이 없다 하였고, 張²¹⁾陳³¹⁾ 등은 勞損으로 陰이 傷하여 水가 火를 制하지 못하니 衝任脈의 血이 動한즉 衄血이 된다하여 陰虛로 因한것이 더욱 많다 하였다.

이에 筆者는 現在 鼻出血로 誤用되고 있는 衄血에 關하여 衄血의 範疇 及 各各의 範疇에 따른 病因病理를 文獻的으로 考察한 바 몇가지 知見을 얻었기에 報告하는 바이다.

II. 調查資料 및 研究方法

1. 調查資料

韓醫學 歷代文獻中 最高의 黃帝內經으로부터 現在에 이르기까지의 48餘種을 選定하여 衄血의 定意 及 病因病理가 收錄된 部分을 拔萃하여 이를 研究對象으로 하였다.

2. 研究方法

- 1) 各 書籍에 나타난 衄血의 定義를 文獻調査하여 衄血의 範疇를 分類하여 보았다.
- 2) 各 書籍에 나타난 廣意의 衄血의 病因病理만을 文獻調査하여 整理하였다.
- 3) 各 書籍에 나타난 狹意의 衄血 및 分類된 衄血의 病因病理를 文獻調査하여 整理하였다.
- 4) 2)3)項에서 얻어진 資料들 中에서 重複되는 內容은 重複되는 대로 整理하였다.

III. 本 論

1. 衄血의 範疇

TABLE I. 衄血의 範疇

韓醫書名	廣意의 衄血	狹意의 衄血	鼻 衄	齒 衄	眼 衄	肌 衄	舌 衄	耳 衄
厥論	○							
氣厥論	○							
素問 大奇論	○							
五常及大論		○	○	○				
六元正氣論	○							
至眞要大論		○	○	○				

靈樞	邪氣藏府病	○							
樞	百病始生病	○							
諸病源候論			○	○	○				
太平聖惠方			○	○					
金匱要略		○							
傷寒論			○	○					
活人書		○	○	○					
聖濟總錄		○	○					○	
三因方		○	○						
河間傷寒三六書			○					○	
濟生方		○							
醫學綱目			○						
普濟方			○					○	
醫方類聚			○						
東垣十種醫書		○							
丹溪心法		○	○	○	○	○			
醫學入門					○	○		○	○
古今醫統大全		○	○					○	○
東醫寶鑑		○							
六科準繩			○	○	○				○
醫貫		○	○	○					
景岳全書			○	○	○			○	
醫門法律			○						
壽世保元			○						
石室秘錄								○	
百病辨證錄			○		○			○	○
張氏醫通			○						
醫宗金鑑			○						
臨證指南醫案			○		○				

濟衆新篇			○	○	○				
雜病廣要		○	○		○	○	○	○	○
南雅堂醫書		○							
黃氏八種醫書			○						
血證論		○				○	○	○	○
醫學衷中參西錄		○							
醫門寶鑑			○						
醫宗損益			○						
證治概要		○				○	○	○	○
活血化癆研究			○						
中醫大辭典		○	○						
金元四大家研究		○							
中醫內科學		○				○	○		
五官科學						○	○		
中醫學問答							○		
眼耳鼻咽喉科學							○	○	
常見病症證治							○		
膏囊訣		○	○			○	○	○	○
東醫內科學						○			

TABLE II. 衄血の病因別分類

病因		引用文獻 NO.
熱	熱	10, 26, 31, 40, 34)
	熱甚 熱極	7, 17, 40)
	熱傷陽絡脈	1, 33, 41)
	熱氣上升	1)
	炎上之火	20)
	虛火上炎	41)
	陽盛	5, 6, 30)

	陽熱鬱於足陽明而上熱	15, 17)
	脾移熱於肝	1, 8, 30)
	膽移熱於腦	7)
寒	陽虛	31)
	風寒	20)
	寒	34)
	陽明厥逆	34)
飲食勞倦	飲食傷	8, 17, 30)
	勞使	4)
七情	七情	7, 17, 30)
	怒氣傷肝	20)
	思慮傷心	10)
其他	暑傷心	20)
	心氣不足	4, 14)
	肝心陰虛	41)

	內傷	15, 16, 19)
齒衄	熱蒸	29)
	風挾熱	2, 30)
	腎熱	25)
	腎虛	15, 19, 30, 41, 37)
	陽明火	21, 33, 37, 41, 47)
	胃虛火	16, 21, 33, 47)
	虛火	21, 41)
眼衄	陽明火熱	33)
	肝火迫路	30, 37)
	誤藥	30)
耳衄	腎虛	25)
	心火	25)
	肝火	30, 33)
	胃熱	33)
	小腸相火	33)
	遺役躁怒	33)

TABLE III. 眼, 耳, 舌, 齒, 汗衄의 病因의 分類

鼻衄의 種類	病因	引用文獻 NO.
舌衄	心熱	17, 25, 30, 37)
	心經風火	33)
	心脾腎火	21)
	胃火	33)
汗衄	肝心俱傷	12, 17, 30)
	心熱	9, 17)
	大喜傷心	15, 29, 30)
	膽熱	29)
	太陽之熱	33)
	腎虛熱	24)
	內傷	16)

TABLE IV. 鼻衄의 病因別 分類

病 因	引用文獻 NO.	
熱火	熱火	22, 26, 28, 29)
	熱火淫所勝	1, 11)
	火炎	32)
	心火	11)
	脾移熱於肝	7, 12)
	胃熱上炎	23)
	肺經之炎	25)
	臟腑有熱	2, 12, 13)
	臟虛熱盛	2, 12)
	陽絡脈傷	33)

	陰虛陽盛	48)
	陽熱	48)
	外寒內熱	11)
	內熱	21)
	上熱	21)
	氣血熱	2)
	血熱	13)
	氣虛熱	2, 13)
六淫外邪	六淫	28)
	內寒暑濕	8, 29)
	寒熱相逼	11)
	傷濕	15)
飲食勞倦	勞傷過度	13)
	勞熱停積	2)
	胃土不降	32, 33)
	傷胃	15)
	飲食傷	8, 13, 15)
其他	七情	8, 13, 28)
	外傷	13)
	上虛下盛	15)

IV. 考 察

韓醫學書籍 總 48卷을 考察하여 衄血의 範疇를 살펴보면, 《素問厥論》¹⁾에 처음 記錄된 以來 廣意的 衄血로는, 《素問》等¹⁾⁴⁶⁻⁸⁾¹⁰⁾¹⁴⁾¹⁵⁾¹⁷⁾²⁰⁾³⁰⁻³⁴⁾³⁷⁾³⁹⁻⁴¹⁾⁴⁶⁾에 記錄되어 있으며, 分類된 衄血로서 鼻衄은 《素問》等¹⁻³⁾⁵⁾¹⁵⁾¹⁶⁾¹⁸⁾¹⁹⁻³⁰⁾³²⁾³⁵⁾³⁶⁾³⁸⁾³⁹⁾⁴²⁻⁴⁵⁾에, 齒衄은 牙宣이라고도 하여 《諸病源候論》等²⁾¹⁵⁾¹⁶⁾¹⁹⁻²¹⁾²⁵⁾²⁸⁻³⁰⁾³³⁾³⁷⁾⁴¹⁾⁴²⁾⁴⁶⁾⁴⁷⁾에, 眼衄은 《雜病廣要》等³⁰⁾³³⁾³⁷⁾⁴⁸⁾에, 肌衄은 血汗汗血, 紅汗이라고도 하며, 《聖濟總錄》等⁷⁾⁹⁾¹²⁾

15-17)24)29)30)33)46)에, 舌衄은 《醫學入門》等¹⁶⁾¹⁷⁾²¹⁾²⁵⁾³⁰⁾³³⁾³⁷⁾⁴⁶⁾에, 耳衄은 《六科準繩》等¹⁹⁾²⁵⁾³⁰⁾³³⁾⁴⁶⁾에 記錄되어 있다. 한편 「衄血」이라 하여 狹意的 意味로의 鼻出血은 《素問》等¹⁻³⁾⁶⁻⁹⁾¹¹⁻¹³⁾¹⁵⁾¹⁷⁻²³⁾²⁵⁻³²⁾³⁵⁾³⁶⁾³⁸⁾³⁹⁾⁴⁶⁾에 記錄되어 있는데, 以上과 같이 衄血은 넓은 意味의 衄血, 좁은 意味의 衄血, 그리고 衄血을 分類하여 鼻衄, 齒衄, 舌衄, 眼衄, 耳衄, 肌衄으로 使用되어 졌다고 思料된다(TABLE I).

廣意的 衄血의 病因病理에 關한 諸家의 理論을 考察하여 보면, 《素問》等¹⁾²⁾³⁰⁾⁷⁾은 脾移熱于肝하여 衄血이 되니 이는 脾는 土요 肝은 木이니 本來 木克土하나 脾熱로 上氣가 蕃盛하여 逆으로 木을 乘하여 脾의 熱이 옮겨지면 流散하여 衄血이 發生한다 하였고, 《靈樞》等¹⁾³⁾³³⁾에는 陽絡脈이 傷하면 血이 外溢하여 衄血이 된다 하였고, 張은 勞使나 心氣不足으로, 陳等⁸⁾¹⁷⁾¹⁹⁾³⁰⁾은 三因으로 內因, 外因, 不內外因으로 區分하여 內因으로는 怒氣傷肝, 積憂傷肺, 煩思傷脾, 失志傷腎, 暴喜傷心하여 衄血이 되고, 外因으로는 風寒暑濕에 傷하여 經絡에 影響을 미쳐 洩溢하므로 衄血이 發하며, 不內外因으로는 飲酒過多 及 啖炙火專五辛熱食으로 衄血이 生한다 하였다. 張⁶⁾은 陽氣가 重하여 陽盛하면 衄血이 發生한다 하였고, 嚴¹⁰⁾은 經絡流注가 순조롭지 못하고 常道를 잃어 妄行하여 衄血이 되는것은 熱로 因하지 않은것이 없다 하였고, 方等¹⁵⁾¹⁷⁾은 陽熱이 沸鬱하여 足陽明에 影響을 미쳐 上熱하면 熱이 甚하니 血이 妄行하여 衄血이 된다 하였고, 《素問》等¹⁾³⁴⁾에는 陽明厥逆則 衄血이라 하였는데 陽明이란 胃腑를 말하며 厥逆이란 胃腑의 氣가 上行하는 것으로 厥逆하면 上行하여 血衄이 되는데 이 所因은 熱이 많고 寒도 조금 있다 하였으며, 李⁴⁰⁾는 心이 血을 養하는 故로 熱이 甚한즉 血이 有餘하여 妄行되어 衄血이 된다 하였고, 趙²⁰⁾는 上炎之火나 暑熱燥火가 衄血을 生한다 하였고 또 怒氣傷肝으로 衄血이 生한다 하였으며, 丹³⁰⁾은 思慮傷心으로 衄血이 發

한다 하였다. 以上과 같이 衄血의 原因은 脾熱, 膽熱, 血熱, 邪熱, 陽熱, 炎上之火, 表熱, 裏熱, 熱傷, 火動 等과 같이 火熱에 依한 것이 主病因이며, 그 外에도 勞使, 心氣不足, 暑傷心, 心氣虛, 陽虛, 陽氣侵陰, 氣損, 寒邪外束 等이 있으며, 크게 三因으로 分類하면 七情에 依한 內因, 風寒暑濕에 依한 外因, 飲食失節에 依한 不內外因 等이 있다고 思料된다.

病理는 臟腑를 內榮하고 經絡을 循行하여 全身을 流注하는 氣와 血이 病因에 依하여 妄行하여 清道를 따라서 耳·眼·舌·齒·肌肉으로 滲出하여 衄血이 된다고 思料된다(TABLE II).

齒衄의 病因病理에 있어서, 巢等²³⁰⁾은 手陽明之脈이 齒에 入하니 頭面에 風이 있고 陽明脈이 虛하면 風熱이 虛함을 타서 齒은에 入하여 血을 搏하는 故로 齒衄이 된다 하였다, 方等¹⁵⁾¹⁶⁾¹⁹⁾은 두가지 原因으로 말하였는데 하나는 風壅이고 하나는 腎虛라 하였다. 病理로는 腎은 骨을 主하며 齒는 骨之餘니 虛하여 上炎하면 腎經이 下虛上盛하여 齒衄이 된다 하였다, 張等²¹⁾²⁹⁾³⁰⁾은 手陽明經은 下齒에 入하고 足陽明經은 上齒에 入하며 腎은 骨을 主管하니 이는 手足陽明 및 足少陰病이라 하였으며 陽明實熱로 因함이 가장 많다 하였다. 陳²⁵⁾은 腎火가 沸騰하여 發한다 하였다, 唐³³⁾은 齒가 비록 腎에 屬하나 口中에 있으므로 胃病에 屬한다 하여 胃火上炎으로 血이 이를 따라 動하여 發한다 하였으며, 上海中醫學院⁴¹⁾⁴⁷⁾에서는 陽明熱盛이나 陰虛火炎으로 衄血이 된다 하였다. 以上과 같이 齒衄의 病因은 胃熱, 腎虛熱, 陽明實熱, 腎水不足, 胃火上升, 陰虛火浮, 陽明經熱, 陰虛火炎 等이 있으며, 經絡的으로 大腸經·胃經·腎經과 密接한 關係가 있다고 思料된다.

舌衄의 病因病理에 있어서, 唐等¹⁷⁾³⁰⁾³³⁾은 心이 血脈을 主하고 舌은 心之苗니 心熱時에 熱逼하여 舌衄이 된다 하였다, 張²¹⁾은 心脾腎脈이 舌에 影響을 미치며 여기에 火가 있으면 舌衄이 된다 하였으며, 陳²⁵⁾은 心火가 太炎하

여 腎中의 水와 相濟하지 못하여 舌衄이 된다 하였다, 丹³⁰⁾은 肝에 血熱壅하거나 胃火로 舌衄이 發한다 하였으며, 李¹⁶⁾는 肝心經이 舌에 入한다 하였다, 丹³⁰⁾은 口는 胃의 門戶라 하였다. 以上과 같이 舌衄의 病因은 心熱, 心脾腎火, 肝熱, 胃火 等이며 經絡的으로는 肝經, 心經, 脾經, 腎經과 關係가 있으며, 特히 肝, 心經과 密接한 關係가 있다고 思料된다.

肌衄의 病因病理를 보면 徐等¹⁷⁾¹²⁾은 肝藏血 하고 久臥하면 血歸於肝이나 心이 行之하니 肝心二經이 傷於邪하여 血이 心液을 따라 汗出한다 하였다, 陳²⁴⁾은 腎虛熱, 酒色不禁, 恣意縱欲하여 肌衄이 된다 하였으며, 徐¹⁷⁾는 心火熱極하면 劣勢가 亢極하여 肌衄이 된다 하였다, 李¹⁶⁾는 內傷, 氣散으로, 方¹⁵⁾³⁰⁾은 大喜傷心하면 喜則氣散하니 血이 氣를 따라서 肌衄이 發한다 하였으며, 丹³⁰⁾은 肌膚出血로 肌衄, 血筋, 汗血 等으로 나누어 言及하였고, 唐³³⁾은 傷寒 失汗으로 邪氣 出路가 없어서 血分으로 下하여 肌衄하는데 太陽之熱이 病因이 된다 하였다. 以上과 같이 肌衄은 肝心俱傷於邪, 腎虛熱, 酒色不禁, 恣意縱欲, 心火, 大喜傷心, 太陽之熱 等이 있으며 經絡上으로는 肝, 心經과 密接한 關係가 있다고 思料된다.

耳衄의 病因病理를 보면 耳는 腎의 竅로써 心包의 火, 命門의 火가 相通, 沸騰하여 生한다 하였다²⁵⁾, 肝, 膽, 三焦, 小腸經과 關係가 있으며 實邪로 耳衄이 發³³⁾한다 하였으며, 丹³⁰⁾은 飲酒多怒, 肝火, 陰虛로 發하며, 蔡⁴²⁾는 肝經熱及 腎經陰虛火動하여 發한다 하였다. 以上과 같이 耳衄의 病因은 心包火, 命門火, 肝熱, 腎陰虛火, 飲食傷 等이 있으며, 腎經과 密接한 關係가 있다고 思料된다.

眼衄의 病因病理를 보면 丹³⁰⁾은 積熱로 肝이 傷하거나 陰血이 搖動하거나 暴病發熱 또는 服藥으로 發한다 하였으며, 唐³³⁾은 陽明燥熱로 發한다 하였고, 歐³⁷⁾는 腎虛火旺으로 水不涵木하여 發한다 하였다. 經絡的으로는 唐³³⁾이 目이 비록 陽明經에 屬하나 肝之竅라 하여

서 肝, 胃經과 關係가 있다하였다(TABLE III).

鼻衄의 病因病理는 比較的 많이 言及되어 있는데, 巢等²³⁾⁷⁾은 무릇 血과 氣는 안으로 臟腑를 榮하고 밖으로 經絡을 運行하는 등 全身을 運行하나 血이 熱을 얻은즉 氣또한 熱이 있어 肺竅인 鼻로 妄行하여 衄血이 된다 하였고, 陳等⁸⁾¹³⁾¹⁹⁾은 衄血의 病因을 六淫으로 因한 外因七情으로 因한 內因飲食過傷으로 因한 不內外因으로 나누어 言及 하였으며, 《素問》等¹⁾¹¹⁾¹³⁾은 熱이 心火를 燄거나, 少陰司天하여 熱氣가 下臨하여 肺氣가 上從하거나, 少陽司天하여 三之氣인 炎暑가 이르거나 太陰司天하여 寒淫所勝하여 鼻衄이 된다 하였다. 張等²⁾¹⁹⁾²³⁾⁴⁸⁾³⁶⁾은 足陽明에 陽熱이 沸騰하여 熱甚함으로 血妄行하여 鼻衄이 된다 하였고, 方¹⁵⁾은 虛, 傷濕, 傷胃, 喜怒憂思, 飲酒過多 등으로 脾衄이 된다 하였고, 張等²⁾¹²⁵⁾은 脾는 肺之竅이며 足陽明의 政經이고 手足太陽經도 이에 關與한다 하여 陽熱沸鬱로 足陽明에 熱이 있으면 血妄行하여 鼻衄이 되며, 張²⁶⁾은 表熱로 因한 傷寒衄血과 裏熱로 因한 雜病衄血로 區分하였다. 黃³²⁾은 肺는 衛氣를 主하고 그 性은 收斂이니 血升하여 不斂하는것은 衛氣가 斂하여 肺가 降하기 때문이라 하였고 肺의 降氣는 胃土에 있고 胃土가 不降하여 上壅하면 肺가 降路하지 못하여 失政하니 君相이 升泄하여 肺金이 營血을 不斂하거나 陽絡이 傷하여 營血이 逆流하여 衛氣不能斂하니 鼻衄이 된다 하였고, 楊等⁴⁾¹⁾⁴³⁾⁴⁶⁾은 肺熱, 胃熱, 肝火로 發하며 病理는 脾가 肺竅이니 肺에 蘊熱이 있으면 肺陰이 消耗되어 血熱이 妄行하여 되거나, 陽明熱이 熾盛하여 胃陰을 消削하면 脾가 乾燥하여 絡脈이 破血하여 發하거나, 肝陽이 偏亢하여 木火가 上擾함으로 迫血妄行하여 脾衄이 發한다 하여 세가지 側面에서 病理를 말하였다. 周³⁵⁾는 鼻가 肺의 外候이니 內外感傷으로 말미암아 火炎妄行하여 위로 肺를 逼하므로 衄血이 된다 하였다(TABLE IV).

以上과 같이 鼻衄의 病因은 火, 熱, 臟腑之熱,

氣血熱, 陽明熱, 手足太陽熱, 胃火上炎, 陽絡脈傷, 氣虛熱 등의 火熱이 主因이며, 또 氣虛熱, 六淫, 七情, 飲食傷, 陰虛, 胃土不降으로도 發한다고 思料되며, 狹意의 鼻衄 및 分類된 衄血의 病理는 같은 機轉이나 發病部位 및 所屬經絡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V. 結 論

韓醫學 文獻들을 통하여 衄血의 範疇를 分類하고 各各에 다른 病因病理를 考察한 바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衄血의 範疇는 廣意의으로는 外傷에 起因하지 않은 外部出血로 眼衄, 耳衄, 鼻衄, 齒衄, 舌衄, 肌衄 등을 包括하며 狹意의으로는 鼻出血을 意味하였다.
2. 衄血의 廣義와 狹意를 莫論하고 主로 火熱로 因하여 發한다.
3. 齒衄의 病因은 主로 胃熱, 腎虛에 因하며 經絡의으로는 大腸, 胃, 腎經과 密接한 關係가 있다.
4. 舌衄의 病因은 主로 心熱로 因하며 經絡의으로는 肝, 心과 密接한 關係가 있다.
5. 肌衄의 病因은 主로 肝心 二臟에 邪氣가 入하여 心液을 따라서 發하며 耳衄과 眼衄은 肝火가 主原因이고 經絡의으로 耳衄은 腎經, 肌衄은 肝, 心經과 密接한 關係가 있다.
6. 分類된 衄血의 病理로는 衄血의 機轉과 같으나 단지 發病部位 및 所屬經絡에 差異가 있었다.

參 考 文 獻

1. 張隱庵馬元臺：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서울，裕昌德書店，p268,388,53,624, 1977.
2. 巢元方：諸病源候論，北京，人民衛生出版社，p122,155, 1982.
3. 太宗命：太平聖惠方(II)，서울，翰成社，

- p1104, 1982.
4. 張機：金匱要略方論，臺北，文光圖書公司，p263, 1978.
 5. 張仲景：傷寒論，上海，上海科技，p46, 1983.
 6. 張仲景：類證活人書，서울，南山堂，p216, 1987.
 7. 趙佶編：聖濟總錄(下)，北京，人民衛生出版社，p1251,1254,1257, pp1259-1260, 1982.
 8. 陳無擇：三因極一病證方論，北京，人民衛生出版社，p115,116, 1983.
 9. 劉河間：河間六書，서울，成輔社，p374, 1976.
 10. 嚴用和：濟生方(醫部全錄 卷271)，春港，宇光出版社，p1253, 1986.
 11. 樓全善：醫學綱目，台南，北一出版社，p12, 民國 62.
 12. 龔延賢：普濟本事方，臺北，宏業書局有限公司，p2504,2507,2544, 民國75.
 13. 金禮蒙：醫方類聚，서울，金剛出版社，pp 2839~42 p2847 pp3043~3044, 1981.
 14. 張景岳：東垣十書(醫部全錄 卷271)，春港，宇光出版社，p1118, 1982.
 15. 方賢：丹溪心法附餘，서울，大星文化社，p407, 1982.
 16. 李梴：醫學入門，서울，翰成社，p329, 1983.
 17. 徐春甫：古今醫統秘方大全，台北，新文豐出版社，pp2860~2863, 1978.
 18. 許浚：東醫寶鑑，서울，南山堂，p107, 1980
 19. 王肯堂：六科準繩(一)，서울翰成社，pp196-197, 1982.
 20. 趙南可：醫貫(醫部全錄 卷271)，春港，宇光出版社，pp37~39,pp45~46, 1982.
 21. 張介賓：景岳全書，大邱，東洋綜合通信教育出版社，p522,p524, 1982.
 22. 周命新：醫門寶鑑，서울，杏林書院，p81, 1975.
 23. 龔雲林：增補壽世保元，서울，錦章圖書局，p272, 宣統三年.
 24. 陳士鐸：石室秘錄，台北，杏林書院，p61, 1982.
 25. 陳士鐸：增補百病辨證錄，서울，書苑堂，pp129~132 p327 p347, 1981.
 26. 張路玉：張氏醫通，臺北，文光圖書公司，pp187~188, 民國65.
 27. 傅方珍：醫宗金鑑，河南省，河南科技，p 918, 1981.
 28. 葉天士：臨證指南醫案，서울，翰成社，p 568 p 570, 1982.
 29. 康命吉：濟衆新篇，서울，杏林書院，pp25~26, 1982.
 30. 丹波元堅：雜病廣要，서울，成輔社，pp526~527 pp534~538, 1986.
 31. 陳修園：南雅堂醫書全集(上)，서울，杏苑社，pp145~146, 1974.
 32. 黃元御：黃氏醫書八種，서울，書苑堂，p47, 1983.
 33. 唐容用：血證論，上海，人民衛生出版社，p44 pp47~50, 1977.
 34. 張錫純：醫學衷中參西錄，上海，人民衛生出版社，p77 p80, 1982.
 35. 周命新：醫門寶鑑，大邱，東洋綜合通信教育出版社，p81, 1987.
 36. 黃道淵：醫宗損益，서울，醫藥社，p71, 1976.
 37. 歐陽錡：證治概要，北京，人民衛生出版社，pp286~287, 1982.
 38. 姜春華：活血化於研究，上海，上海科技，p126, 1981.
 39. 編輯委員：中醫大辭典，北京，人民衛生，p256, 1982.
 40. 李聰甫：金元四大家學術思想研究，서울，成輔社，p27, 1985.
 41. 上海中醫學院：中醫內科學，上海，上海科技，pp115~117, 1982.
 42. 蔡炳允：漢方眼耳鼻咽喉科學，서울，集文堂，p244, 1982.

43. 楊醫亞主編：中醫學問答，臺北，人民衛生出版社，p605，1985.
44. 李相漸：漢方眼耳鼻咽喉科學，서울，서울大學出版部，p94，1967.
45. 南采祐：膏囊訣，서울，癸丑文化社，pp 14-15，1973.
47. 具本泓編著：東醫內科學，서울，書苑堂，pp164-165，1985.
48. 方賢：奇效良方，春港，商務印書館，p925，1977.